

제8장 순례지와 순례

261.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는 아마도 순례지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순례지들은 주로 삼위일체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인들과 복자들에게 봉헌된다. “순례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성되이 전하고, 특히 성찬과 참회의 거행으로써 전례 생활을 적절하게 증진시키며 또한 승인된 대중적 신심 형태를 보급시켜 신자들에게 구원의 수단들이 더욱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³⁷⁵

순례는 순례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대중 신심의 표현이다.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순례지와 순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신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 지도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순례지의 사목 활동과, 순례가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375. 교회법 제1234조 1항.

순례지

원 칙

262. 그리스도교의 계시에 따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결정적인 성전이시며 (요한 2, 18-21; 묵시 21, 22 참조),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다. 그리하여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새로운 거처가 된다(1베드 2, 5; 에페 2, 19-22 참조).

흔히 대중 신심에서 비롯된 순례지는, 신학적으로 볼 때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현존을 보여 주는 표지이며, 천상 도성으로 나아가는 하느님 백성이(히브 13, 14 참조) 순례 여정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새로운 힘을 얻는 휴식처이기도 하다.³⁷⁶

263. 성당과 마찬가지로 순례지는 매우 큰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순례지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하느님의 집”(묵시 21, 3)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몸과(요한 1, 14; 2, 21 참조) 신자들의 교회 공동체를(1고린 3, 16-17; 6, 19; 2고린 6, 16 참조) 통하여 실현되는 ‘성전의 신비’를 암시한다.

순례지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항구한 신심을 불러일으킨 특이하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거나, 많은 은총을 입은 신자들의 감사의 마음과 신심을 보여주는 장소.

376.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순례지 — 살아계신 하느님을 기념하며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는 예언의 자리」(*Il Santuario*), 1999. 5. 8., 바티칸 시: 바티칸 출판사, 1999년 참조.

● 자비의 표징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우심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인들과 복자들의 전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 흔히 높고 한적하며 엄숙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주의 조화를 보여 주며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장소.

● 설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사랑의 생활과 자비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초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권고하는 장소.

● 성사 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은총 안에서 성장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와 위안을 얻는 장소.

● 복음 메시지의 선포를 통하여 하느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명하는 장소.

● 종말론적인 시각과 초월성에 대한 의식을 기르고, 지상의 발걸음이 천상의 성전을 향할 수 있게 장려하는 장소(히브 9, 11; 묵시 21, 3 참조).

● “모든 그리스도교 순례지는 하느님을 보여 주고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는 변함없는 표지였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순례지들은 저마다 주님의 강생과 구원 활동을 기념한다.”³⁷⁷

교회법적 인정

264. “순례지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377. 요한 바오로 2세, 프랑스 순례지 책임자들에게 한 훈화,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V/I(198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1, 138면.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³⁷⁸

교구나 국가적 국제적 순례지가 교회법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각각 교구장 주교와 각국 주교회의,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적 승인은 어떤 거룩한 장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며,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과 교회와 이웃과 화해를 이루고, 하느님의 어머니나 성인들의 전구를 간청하고자 그곳을 찾는 하느님 백성의 순례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장소, 곧 도시나 시골에 있는 흔히는 초라한 작은 성당들이, 교회법적인 인정을 받지 않고도 해당 지역에서 순례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 장소는 그 지역에 살며 신앙 안에서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묵시 21장) 하느님 백성과 특수 공동체의 신앙과 대중 신심을 보여 주는 ‘지도’의 일부이기도 하다.³⁷⁹

경배 예식의 장소인 순례지

265. 순례지는 중요한 경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순례지에 간 신자들은 그곳에서 하는 전례 거행과 다양한 신심 행위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복음서의 가르침을(요한 4, 20-24 참조)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78. 교회법 제1230조. 대사의 수여에 관해서는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33항 1호, 4B, 77면.

379. 「구세주의 어머니」, 28항 참조.

바람직한 전례 거행

266. 순례지 책임자들은 순례지에서 거행되는 전례가 질적으로 훌륭한 것이 되도록 신경써야 한다. “교회법이 확인한 순례지의 고유한 기능들 가운데 하나는 전례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례 거행의 횟수를 늘린다는 뜻이 아니라, 전례 거행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말이다. 순례지 책임자들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순례지 책임자들은 각지에서 순례지를 찾아 온 신자들이 전례 거행을 통하여, 다시 말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의 능력, 숭고하고 간결한 그들의 예식 표현, 전례 규범의 성실한 준수 등을 통하여 영적인 위로와 감화를 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순례지 책임자들은 훌륭한 전례 거행의 효과는 순례지에서 거행되는 전례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제와 순례자들이 자신들이 순례지에서 경험하였던 강렬한 예배의 인상들을 자기 고장에 가지고 가 전해 주기 때문이다.”³⁸⁰⁾

고해성사 거행

267. 많은 신자들에게 순례지 방문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거행 장소: 성당 안에 위치한 전통적인 고해소 외에도, 고해성사의 거행을 위하여 공동체 준비와 참회 예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고해 경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고해성사와 관련된 교회법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고해에 요구되는 비밀 유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고해 사제와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380.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75항.

● 고해성사 준비: 때때로 신자들은 고해를 준비할 때, 특히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뜻과 정성을 모아 하느님을 향하고자 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한다.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 중의 첫째는 통회이기 때문이다.”³⁸¹⁾ 『고해성사 예식서』에는³⁸²⁾ 하느님 말씀의 효과적인 거행을 통하여 고해를 준비하도록 돕는 예식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몇 가지 적절한 준비 자료를 비치해 두어 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회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예식 행위의 선택: 신자들이 고해성사의 교회적 성격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고백과 사죄경(고해성사의 두번째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몇몇 고해자들의 회해 예식은 철저히 준비하여 거행되는, 예외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고해성사 거행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행은 특히 전례 주년의 특정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공동 예식 거행으로써 참회의 교회적 성격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³⁸³⁾ 개별 고백과 사죄경 없는 회해는 완전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형태의 고해성사이며, 일반적인 형태의 고해성사를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괄 사죄 형식의 사용은 대축일이나 순례 때처럼 참회자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³⁸⁴⁾

성찬례 거행

268. “성찬례 거행은 순례지들의 모든 사목 활동의 절정과 중심이다.”³⁸⁵⁾ 성찬례 거행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 훌륭한 성

381. 『고해성사 예식서』(Ordo Paenitentiae), 6항.

382. 같은 곳, 부록 [2], 참회 예식 표본, 1-73항 참조.

383. 같은 곳, 일러두기, 22항.

384. 교회법 제961조 1항 2호 참조.

385. 「성모 미사 경본」, 일러두기, 30항.

찬례 거행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단체들이 동시에 성찬례를 거행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행은 성찬례 거행이 형제애의 표현이기보다는 교회의 친교와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개인주의의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성찬례 신비의 교회적 차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며 사랑의 끈”³⁸⁶인 성찬례 거행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순례단을 이끄는 사제들은 같은 언어권의 다른 단체들과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충분히 동의할 것이다. 순례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일 경우, 사도 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좀 더 단순한 곡조를 사용해서 라틴어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⁸⁷ 이러한 성찬례 거행은 교회와 성찬례의 참모습을 보여 주며, 신자들에게는 상호 만남의 기회와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를 준다.

병자성사

269. 『병자성사 예식서』에는 특히 순례지를 순례할 경우에 대비한 병자성사의 공동 예식이 들어 있다.³⁸⁸ 공동 예식은 병자성사의 본질과 완전히 일치한다. 물론, 주님의 자비를 더욱 열심히 간청하는 순례지에서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된 신자들이 교회의 어머니다운 관심도 더욱 열심히 간구할 것이다.³⁸⁹

공동 예식은 『병자성사 예식서』의 규정들과 일치하여 거행

되어야 한다. “여러 사제가 있으면 병자 몇 사람씩을 나누어 안수하고, 역시 나누어서 기쁨 바르는 예식과 그에 따르는 기도문을 할 수 있다. 다른 기도문들은 주례자가 혼자서 외운다.”³⁹⁰

다른 성사들의 거행

270.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병자성사의 거행 이외에, 때에 따라 다른 성사들도 거행한다. 순례지 책임자들은 교구장 주교의 결정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며, 덧붙여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순례지와 본당 공동체 사이에 참된 이해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 모든 성사의 본질을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들은 준비가 필요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을 개별 교회 공동체에 소속시키므로, 그러한 성사들은 정상적으로 본당에서 받아야 한다.

- 모든 성사 거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순례지 책임자들은 소속 교구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제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남녀의 혼인도 진행시킬 수 없다.³⁹¹

- 여러 가지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모든 상황에 대한 규범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무일도의 거행

271. 순례지 방문은 언제나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386. 전례 현장, 47항.

387. 『미사 경본의 충지침』, 19항 참조.

388. 『병자성사 예식서』, 83항 참조.

389. 교회법 제1004조 참조.

390. 『병자성사 예식서』, 90항.

391. 교회법 제1115조 참조.

위한 특별한 기회이며, 신자들이 성무일도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지상을 순례하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께 바치는 찬미에 동참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³⁹²

그러므로 순례지 책임자들은 순례자들을 위한 전례 일정에서 성무일도, 특히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합당하고 적절하게 바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순례지와 관련된 신심 성무일도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바칠 수 있다.³⁹³

순례지에 대한 순례 중에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성무일도의 몇몇 시간경을 바치게 해야 할 것이다.

준성사

272. 교회는 초기부터 사람과 장소, 음식, 기타 다른 사물들을 축복하는 관습에 익숙하다. 오늘날 이러한 축복 관습은 신자들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 있는 옛 관행이나 관습들 때문에 몇 가지 미묘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신자들이 자비의 성모님과 성인들의 전구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간청하고, 갖가지 다양한 복을 빌러 오는 곳인 순례지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다. 축복을 줄 때의 올바른 사목 관행을 위해서 순례지 책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로마 예식서의 원칙들을³⁹⁴ 점차 신중하게 적용해 나간다. 이 원칙은 축복이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참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가능하면 축복의 ‘전형적인 구조’를 이루는 두 가지 요

392. 「성무일도 총지침」, 27항 참조.

393. 같은 곳, 245항 참조.

394. 『축복 예식서』, 일러두기, 1-34항 참조.

소에 합당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하나는 거룩한 표징에 의미를 주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성품 교역자가 십자 성호를 그을 때 상기시키는 것처럼, 교회가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때 쓰는³⁹⁵ 기도이다.

- 개별적이거나 사적인 거행보다 공동체 거행을 우선하고 신자들이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한다.³⁹⁶

273. 그러므로 순례지 책임자들은 하루 중 특별한 때에, 특히 순례자들이 많이 묵미하는 시간에 축복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⁹⁷ 신자들은 품위와 권위가 넘치는 이러한 예식에서 축복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강복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⁹⁸

복음화의 장소인 순례지

274. 무수한 사회 홍보 매체들이 날마다 온갖 뉴스와 소식을 내보낸다. 그러나 순례지는 생명의 메시지인 “하느님의 복음”(마르 1, 14; 로마 1, 1),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마르 1, 1)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다. 다시 말하여 하느님에게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영원한 화해를 이루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순례지를 순례하는 신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메시지

395. 『축복 예식서』, 일러두기, 22-24항 참조.

396. 같은 곳, 일러두기, 24항 참조.

397. 같은 곳, 일러두기, 30항 참조.

398. 같은 곳, 일러두기, 15항 참조.

의 요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상 설교의 중요 내용들,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섭리에 대한 기쁜 선포, 사랑의 계명,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 인간 생명의 초월적인 목적 등이 그것이다.

순례지들은 대부분 복음을 선포하기에 효과적인 장소이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초대하거나, 인내를 권고하고, 정의의 요구들을 상기시켜 주며, 위로와 평화의 말을 전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많은 순례지가 나름대로 만민 선교(Ad gentes)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복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선 활동의 중심지인 순례지

275. 순례지는 자선 활동을 통해서도 훌륭한 역할을 한다. 모든 순례지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현존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모범과 전구를 기리는 만큼 “그 자체가 자선의 빛과 따뜻함을 발하는 화로이다.”³⁹⁹ 흔히 말하듯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선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랑이다.”⁴⁰⁰ 자선은 환대와 자비, 연대와 나눔, 도움과 베풀음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많은 순례지가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사랑과 형제적 사랑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요구를 전달해 주는 중심지이다. 이것

은 신자들의 너그러움과 순례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가능해진다. 성모님의 어머니다운 관심과 성인들의 자비로운 현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순례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른다.

●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나 병원, 양로원과 같은 상설 사회 복지 센터를 설립하고 확장한다.

● “순례자들, 특히 가난한 이들을 따뜻이 맞아들여, 가능한 한 그들에게 안식처와 쉼터를 제공한다.

● 노인들과 병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 주고, 그들에게 언제나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순례지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 준다. 그들을 일반 순례자들에게서 격리하지 않으며, 그들의 예식 참여 능력을 고려하여 편리한 시간에 예식을 거행하여야 하며, 순례지와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도 있어야 한다.

● 교육을 많이 받은 신자나 못 받은 신자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토박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순례지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준다.”⁴⁰¹

문화의 중심지인 순례지

276. 순례지는 흔히 문화 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순례지는 역사적 예술적 기념물, 특별한 언어 형태와 문학 형태, 음악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중 문화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종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순례지는 흔히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399. 교황청 성모성년중앙위원회, 회람 *Marian Sanctuaries* 1987. 10. 7., 4항.

400. 위와 같음.

401.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76항.

정의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순례지는 은총과 본성, 신심과 예술을 조화롭게 종합할 수 있으므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지극히 아름다운(Tota pulchra) 신비와 모든 성인의 놀라운 업적을 관상하는 아름다움의 길(Via pulchritudinis)을 보여 주는 하나의 표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순례지를 ‘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는 성 ‘화상(畫像)’ 제작과 음악회, 기타 다른 예술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중요한 출판물도 낼 수 있는 교육 과정과 강의 준비 등이 포함된다.

순례지의 문화 활동은 인간 발전을 돕는 부차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활동은 하느님 경배와 복음화, 자선 활동의 자리인 순례지의 주요 기능과 비교하여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례지의 책임자는 순례지의 예배 기능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에 밀리지 않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순례지와 교회 일치 운동

277. 순례지는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열심한 전례 생활과 자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들과도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의 규범에 따라,⁴⁰² 어느 정도 ‘영적 이익’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례지는 한 분이신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일치에 대한 증대하고 시급한 필

요성을 절감하며, 교회 일치 노력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순례지의 책임자는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과⁴⁰³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가 말하는 “영적 일치 운동”⁴⁰⁴에 대하여 순례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일반 신자들에게도 기도할 때나 성찬례를 거행할 때, 또는 일상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⁴⁰⁵ 그러므로 순례지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리시어 그들의 일치와 보편적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기다렸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기억나게 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여야 한다.⁴⁰⁶

순례지 책임자는 때때로 기회가 생기면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 기도회는 신중히 협력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가져온 기도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로, 다른 종교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실제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찾아 방문하는 순례지들도 있다. 순례지에서 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가톨릭 신앙과 언제나 분명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교회의 신앙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흐려 놓아서는 안 된다.

278. 성모님께 봉헌된 순례지에서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우리

403. 8항.

404.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25항, AAS 85(1993), 1049면.

405. 같은 곳, 27항, AAS 85(1993), 1049면 참조.

406. 같은 곳, 110항, AAS 85(1993), 1084면 참조.

402.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AAS 85(1993), 1039-1119면 참조.

의 구세주를 낳으셨으며 최초의 완벽한 제자이셨던 성모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치와 화합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모님을 일치의 어머니(Mater unitatis)라고 부른다.⁴⁰⁷ 역사적 차원에서는, 구원의 역사에서 성모님께서 하신 역할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까닭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 그러나 성모님의 역할이 교회 일치 대화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순례

279. 순례는 보편적인 신앙의 체험이며 대중 신심의 전형적인 표현이다.⁴⁰⁸ 순례는 순례지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순례지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⁴⁰⁹ 순례는 순례지를 필요로 하고, 순례지는 순례를 필요로 한다.

407. 『성모 미사 경본』, 38, “일치의 어머니 성 마리아”(Sancta Maria Mater Unitatis);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192, 2 PL 38, 1013; 바오로 6세, 주님 봉헌 축일 강론, 1965.2.2., *Insegnamenti di Paolo VI*, III(1965),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66, 68면; 요한 바오로 2세, 야스나고라 순례지에서 한 강론, 1979.6.4.,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I/1(1979),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79, 1418면; 삼중 기도 혼화, 1988.6.12.,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I/1(1988),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9, 1997면 참조.

408.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대회년의 순례」, 1998.4.25., 바티칸 시: 바티칸 출판사, 1998년 참조.

409. 교회법에 따르면 순례의 빈도는 순례지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순례지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교회법 제1230조).

성서의 순례

280. 성서에서 종교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순례는 성조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이 세겜과(창세 12,6-7; 33,18-20 참조) 베델(창세 28,10-22; 35,1-15), 마므레(창세 13,18; 18,1-15) 지방을 순례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장소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 주셨으며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던 장소인(출애 19-20 장 참조) 시나이산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사막을 가로지른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되었다. 이 여정에는 당신 백성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민수 9,15-23 참조)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장막(사무 7,6 참조)과 계약의 궤(민수 10,35 참조), 그리고 하느님의 강복이 있었다.

성전과 계약의 궤가 있는 곳이 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도시 전체가 순례지로서 “순례의 길”(시편 83,6(84,5))을 떠나는 목적지가 되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축제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시편 41,5(42,4))를 마주하였으며, “하느님의 집”에서(시편 83,7-9(84,6-8) 참조) 하느님을 뵈게 되었다.⁴¹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일년에 세 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 나와야 했다(출애 23,17 참조). 이리하여 과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으로 순례하는 관습이 생겼다. 예수님의 성가

410. 순례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시편 120-133(121-134)의 ‘성도로 오르는 노래’에서 생겼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래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상을 순례하는 교회의 기쁨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정과 같이 신앙심이 깊은 가정들은 이러한 과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루가 2, 41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셨다(요한 11, 55-56 참조). 루가 성인은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신비로운 순례로 묘사하고 있다(루가 9, 51-19, 45 참조). 이 순례의 목적지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던 도시 예루살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요한 16, 28)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선교 여정을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러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사도 2, 5).

그리스도인의 순례

281.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심으로써(요한 13, 1 참조) 당신 자신 안에서 결정적인 탈출을 경험하셨고, 몸소 성전의 신비를 완성하셨으므로(요한 2, 21-22 참조), 제자들에게 의무로서 지워지는 순례는 더 이상 없다. 제자들의 온 생애는 이제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순례가 되고, 교회는 “지상의 나그네”⁴¹⁾로 비쳐진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과 순례에 내재된 영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순례를 합법적인 신심 표현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순례를 장려해 왔다.

282.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순례는 교회 역사에서 처음 3세기 동안은 교회 예배 생활의 일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는 순례를 자주 실천하고 있던 유대교와 이교도의 종교 관행에

물들까봐 염려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그리스도교의 특성을 지닌 순례 관행이 부활할 수 있는 바탕이 놓여졌다.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이 그것인데,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뛰어난 증인들인 이들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무덤을 찾아갔다. 이 관습이 지역적으로 점차 ‘신심 방문’과 ‘신심 순례’를 대신하게 되었다.

283.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에 주님의 수난과 관련된 장소들과 수난의 유품들이 개발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순례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순례가 특히 중요해졌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곳의 거룩한 장소들이 그곳을 ‘성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세기의 *Itinerarium Burdigalense*와 *Itinerarium Egeriae* 같이 그 당시의 기록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거룩한 장소들’ 위에 대성전들이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아나스타시스 대성전과 해골산에 세워진 마르티리움 대성전은 금방 순례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유년기와 공생활과 관련된 유적지들 또한 순례지가 되었다. 시나이산과 같이 구약과 관련된 몇몇 장소들을 찾아가는 순례도 시작되었다.

284. 증세는 순례의 황금기였다. 순례는 순수한 종교적인 기능 이외에도, 서구 그리스도교의 발전과 여러 나라의 융합, 모든 유럽 문명이 낳은 사상과 가치관의 교류에도 특별히 이바지하였다.

순례 장소는 수없이 많다. 예루살렘은 모슬렘이 차지하였지만 신자들에게 여전히 큰 영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무덤을 방문하고자 하는 신자들이 언제든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십자군이 일어났다. 수많은 순례

411. 『로마 미사 전례서』, 감사기도 제3양식, 전구.

자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베로니카의 수건, 계단, 예수님의 수의 등 수난의 도구들을 경배하려고 모여들었다. 로마에 온 순례자들은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무덤(ad Limina Apostolorum)과 지하 묘지, 대성전들을 찾아 참배하며,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보편 교회에 하는 봉사에 감사하였다. 9세기부터 16세기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자주 찾았다. 순례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도보로 와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이며 그리스도적 사랑에 넘치는 순례의 개념을 성찰하였다. 투르의 성 마르탱 무덤은, 베케트의 성 토마의 순교지인 캔터베리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요한 순례지였다. 이들 순례지는 유럽 전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아폴리아의 몬테 가르가노, 피에몬테의 산 미켈레 델라 키에우사, 노르망디의 몽 생 미셸 등은 모두 대천사 성 미카엘에게 바쳐졌으며, 윌싱험, 로카마두르, 로레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순례지였다.

285. 현대에 들어서는 변화된 문화 상황과 개신교 운동을 둘러싼 사건들, 계몽주의의 영향 때문에 순례가 쇠퇴하였다. 이제 는 먼 나라로 떠나는 여행이 십자가의 길의 경우에서처럼 짧게 축소된 ‘영적 여정,’ 곧 ‘내적 여정’이자 ‘상징적 행렬’이 된다.

19세기 후반에는 한층 달라진 형태로 순례가 다시 성행하였다. 이 당시 순례의 목적지는 특정 국가들의 신앙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한 특별한 순례지였다. 예를 들어 알티팅, 안티폴로, 아파레시다, 아시시, 카아쿠페, 코로모토, 쟁스토호바, 에르나킬람-안가말리, 파티마, 과달루페, 케벨레, 늑, 라 망, 로레토, 루르드, 마리아켈, 마리아엔베어그, 몬테베르지네, 몬세라트, 나가사키, 나무공고, 파도바, 폼페이, 산 조반니 로톤도, 워싱턴, 야무수크로 등이다.

순례의 영상

286.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순례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지만, 세세 대대로 본질적인 영성의 특징은 그대로 간직하였다.

종말론적인 차원. 이것은 순례의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차원이다. 순례, 곧 ‘순례지로 가는 여정’은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여정의 한 단계이며 비유이다. 순례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인 인간(homo viator)의 종말론적 운명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이다. 우리의 일생은 신앙의 불확실함에서 벗어나 명료한 시각을 갖고자 하는 갈망으로, 시련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여정의 피로에서 고대하는 휴식으로, 유배지에서 본향으로, 분주한 활동에서 관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⁴¹²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인 출애굽 사건은 순례의 영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순례자들은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다.”(히브 13,14)는 것과, 눈앞의 목적지인 특정한 순례지를 넘어, 그리고 광야의 삶을 넘어, 하늘 나라에 우리의 진정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회의 차원. 순례는 회개의 여정이기도 하다. 순례지로 여행을 하면서 순례자는 자신의 죄와 덧없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애착을 깨닫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며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순례지 방문은 신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흔히 고해성사에 도움이 되도록

412.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복음 강해」(Tractatus CXXIV In Iohannis Evangelium), 5항, CCL 36 Turnholti, 1954, 685면 참조.

이루어진다.⁴¹³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순례는 참회 행위로 비쳐졌다.

참된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는 ‘자기의 삶을 바로잡아’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며 더욱 초월적인 삶을 살고자 할 것이다.

축제의 차원. 순례의 참회적인 측면은 축제적 차원으로 보완된다. 축제의 차원 또한 순례의 핵심이며, 여러 가지 인간학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기쁨은 예루살렘으로 경건한 순례를 떠나며 “주님의 집에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시편 121[122], 1)고 노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연장하는 것이다. 순례는 일상의 단조로운 삶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고단한 삶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순례는 일상생활의 짐을 털어 줄 수 있다. 순례는 서로 만나는 친교의 시간들과, 때로는 억눌려 있을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를 드러내는 기회이다.

경배의 차원. 순례는 본질적으로 예배의 행위이다. 순례자는 하느님을 만나 뵙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며 하느님께 흠숭과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께 자기 마음을 열어 보이고자 순례지를 찾아간다.

순례자는 순례지에서 참배하는 동안 전례 고유의 또는 대중 신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예배 행위를 완성한다. 순례자는 다양한 기도를 바친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찬미와 흠숭의 기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

도, 서원 이행 기도, 삶에 필요한 은총을 간청하는 기도,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기도 등이 그것이다.

순례자들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강력한 전구자들이신 성모님과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자주 기도를 바친다. 순례지에서 공경받는 성화상들은, 영광을 받으시고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자의 일을 하시며”(히브 7, 25)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마태 18, 20; 28, 20 참조) 예수님을 둘러싸고 계신 하느님의 어머니와 성인들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예수님이나 성모님, 천사나 성인들의 성상들은 하느님의 현존과 섭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표지들로서, 하느님께 탄원을 올리는 사람들의 기도와 고통 받는 이들의 탄식, 은총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을 보여 준다.

사도적 차원. 어떤 의미에서 순례자들의 여정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루 다니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여정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순례는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며 순례자들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선포자”⁴¹⁴가 된다.

친교의 차원. 순례지를 여행하는 순례자는 “순례의 길”에서(시편 83, 6[84, 5] 참조)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루가 24, 13-35 참조) 순례자와 동행하시는 주님과도 신앙과 사랑의 친교를 나눈다. 순례자는 자기 공동체와 더불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여행을 하며, 천상과 지상의 교회와 함께 여행을 한다. 순례자는 수세기에 걸쳐 그 순례지를 찾아 기도를 하였던 모든 신자와 함께 여행을 한다. 순례자는 순례지 주변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자연

413. 본문 267항 참조.

4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14항.

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순례자는 특히 예술을 통하여 순례지에 자신의 고통과 희망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인류와 함께 여행을 한다.

순례 여정

287. 순례지는 기도의 장소이므로 순례는 기도의 여정이 다. 순례 여정의 단계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며, 하느님 말씀은 순례의 빛과 지침, 양식과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예배 행위로 비쳐지는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거기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순례 기간에 펼쳐질 다양한 예식들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예식의 여러 단계들을 충분히 강조하여야 한다.

순례는 본당이나 다른 적절한 성당에서 성찬례를 거행하거나 성무일도의 일부를 바치고⁴¹⁵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 축복을 하는 등⁴¹⁶ 기도로 시작하여야 한다.

순례의 최종 단계에서는 특히 열정적인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행렬을 지어 도보로 여행을 하고, 중간 중간에 기도와 성가를 바치면서, 순례지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작은 성당들도 들른다.

순례자 영접은 문전 전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순례자들과 순례지 책임자들은 완전한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된다. 가능하다면 순례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순

례지 책임자들도 순례자들과 함께하여야 한다.

순례지에서 보낸 시간은 순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회개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고해성사를 받고, 순례지의 성격이나 순례의 목적에 따라 개인적으로 감사 기도와 간청, 전구를 드리며, 순례의 정점인 성찬례를 거행함으로써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⁴¹⁷

순례지에서든 순례의 출발점이었던 성당에서든, 순례를 마칠 때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⁴¹⁸ 순례자들은 순례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더욱 헌신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여야 한다.

예부터 순례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방문했던 순례지들을 상기시키는 순례의 기념품들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순례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성상, 책들이 순례지의 정신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장이나 상품 진열대를 순례지의 거룩한 장소 안에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상혼을 배제하여야 한다.

415. 『축복 예식서』, 순례자들의 축복, 407항 참조.

416. 같은 곳, 떠나는 순례자들의 축복, 409-419항 참조.

417. 본문 265-273항 참조.

418. 『축복 예식서』, 돌아오는 순례자들의 축복, 420-430항 참조.

결 론

288. 이 지도서의 1부와 2부에는 대중 신심과 종교심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권장하며 그것을 전례와 조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과 제안과 지침들이 들어 있다.

이 지도서는 특별한 전통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기본 전례 조건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침들을 강조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목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구장들은 대중 신심이나 대중 종교심과 관련된 지역 전통과 특별한 표현들을 참작하고, 협력자들, 특히 순례지 책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침과 규범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문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The Directory on Popular Piety and The Liturgy — Principles and Guidelines*,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dds/documents/>